



# 한국 청능사 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udiologists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66,402(능동 광정빌딩) 02.552.4236 F) 02.552.4237 [www.audiologist.or.kr](http://www.audiologist.or.kr)

문 서 : 청협 2018-08-04

2018년 8월 14일

수 신 : 청능사 및 예비청능사

제 목 : 제2차 국회 토론회 개최 관련 안내 말씀

청능사 및 예비청능사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는 더위에도 임상현장에서 난청인들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훈련을 위해 **청능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과 청능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현재 청각학을 공부하고 계신 예비청능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능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청능사에 대한 전국적 홍보 그리고 숙원사업인 청능사 국가자격화를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청능사 국가자격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2018년 8월 28일(화) 오후1:30-4:00 국회의원회관(제2 소회의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2018년 4월 12일)에서는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청능사)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번 2차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그러한 전문인력(청능사) 배출을 위한 **“교육기준과 업무범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청능사협회, 보청기협회, 청각학교수협의회, 대한노인회 대표자들의 토론은 물론 청능사의 국가자격화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청능사 자격을 가진 회원뿐만 아니라 예비청능사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1. 청능사 국가자격은 보청기센터, 병의원, 특수학교, 재활기관, 청각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한국청능사협회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이비인후과의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및 관련 전문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난청인에게 더 나은 청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능사 국가자격의 주인입니다. 협회임원 몇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길 부탁드립니다.

2.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분들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했지만 대외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전문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중요한 일에 전문가로서 동참하여 청능사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3.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청능사와 예비청능사 여러분 **모두** 국회토론회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회에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장에 들어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정부와 국회에 청능사들의 단합된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혹시 아직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청능사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청능사(특히 병의원 소속)가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회원 가입도 하시고 협회의 주인이 되어 어렵게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청각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멋진 선구자가 됩시다.

5.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염려가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기운이 모아지면 국가자격은 조만간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 참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일 행사에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8월 23일(목요일)까지 이메일 (master@e-ats.net) 혹은 문자(010-5600-2302)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길 청능사와 예비청능사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8시간 인정함도 알려드립니다. 모두 국회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토론회포스터, 발제문

한국청능사협회 회장

